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3호, 2011,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3, 2011, pp.1~20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중산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ffection parenting in low income class and middle income class

민하영(Min, Ha Yeoung)**

긍정적 경험, 긍정적 특질, 긍정적 조직의 복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약점만큼이나 강점을 강조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야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보다 희망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려 노력한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거부적 양육행동, 부부갈등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둘 뿐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내재되어 있는 안녕감이나 따뜻함, 애정성, 안정성, 희망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나 성격 등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성' 속에 내포하고 있는 유연성과 통합성,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취약함이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정적 양육행동,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등 개인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저소득층 어머니 101명과 중산층 어머니 238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산층 어머니의 경우처럼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나 안정된 성인애착의 영향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중산층 어머니와 달리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완전 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향상을 위해 중산층 어머니보다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정 양육행동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 임.
** 제1저자(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hymin@cu.ac.kr

I. 서 론

긍정적 경험, 긍정적 특질, 긍정적 조직의 복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긍정 심리학(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함에 있어 약점만큼이나 강점을 강조해야 하고 최하의 것을 개선하는 것 만큼 최상의 것을 확립해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야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보다 희망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려 노력한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거부적 양육행동, 부부갈등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둘 뿐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내재되어 있는 안녕감이나 따뜻함, 애정성, 안정성, 희망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나 성격 등 개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긍정성' 속에 내포하고 있는 유연성과 통합성, 위기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취약함이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정적 양육행동,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등 개인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를 간섭하고, 위협하며, 무시하고, 지시하며, 힘에 기초해 체벌하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달리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며, 애정을 표시하고 지지해주는 행동을 말한다(Rohner, 1987; 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5). 이러한 애정적 양육행동은 거부적 양육행동과 상반된 개념이지만 양육행동에서 애정이 낮다고 반드시 거부적인 것은 아니며 거부가 낮다고 그것이 애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애정적 양육행동은 거부적 양육행동과는 양립할 수 없는 독립적 개념의 긍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Rohner et al., 2005). 이러한 애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 관계에서 발달되는 애착 특성인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성인애착이란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특성으로,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타인에게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

된 경향성(Berman & Sperling, 1994)을 말한다. 이러한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하며 대인관계 경험에서 형성된 인지적-애정적-동기적 도식인 애착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에 의해 조절된다(Bowlby, 1982). 내적작동모델은 주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안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개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oit & Parker, 1994;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생애 초기의 애착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안정된 애착을 발달시킨 사람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대상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성인애착이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보다 지지적이며, 배려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이주일, 2004; Volling, Notaro, & Larsen, 1998)되고 있다.

성인애착이 성인-성인간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듯이 성인-아동간 관계 즉 부모-자녀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 애착을 잘 형성한 어머니는 아동을 적절히 잘 지원해주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덜 하는 등 자녀의 양육행동에서 보다 더 애정적이며 보다 덜 거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김지영, 민하영, 2010; Crowell & Feldman, 1988)되고 있다. 그러나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도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평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생애 초기 과거로부터 발달한 심리적 특성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평가는 '지금 그리고 현재(here & now)'의 내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모-자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해도, 그 영향력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 평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어머니의 과거 아동기 양육경험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현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전현진, 박성연, 1999)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역시 어린 시절부터 발달해온 아버지 자신의 인성특성보다 현재의 결혼만족도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허영림, 윤혜진, 1999)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과거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아버지의 인성 특성보다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더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삶의 만족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 등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 심리학에서 시작된 삶의 만족도 연구로부터 발전한 개념이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Diener 등(Diener, 1984; Diener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을 주축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Ryff와 그의 동료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은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같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Diener 등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행복이나 만족과 같은 정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했다. 양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정서적 안녕감처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인간으로써 성장하고 개발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질적 유대를 형성하는 등의 실존적 도전감과 성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같은 심리적 측면과 기능을 강조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로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주장(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Ryff & Keyes, 1995)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으로 Copmton(2005)의 자아실현적 행복감(신민희, 구재선, 2010)을 반영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아실현적 행복감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복지감 등을 토대로 자녀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국내 연구(김지영, 민하영, 2010; 박성연, 임미리, 2002; 송신영, 박선영, 2008)는 소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Ryff와 그의 동료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의 시각과 달리, 정서적 만족감에 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에 대한 Ryff 등의 심리적 안녕감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Ryff 등(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의 심리적 안녕감을 기초로 아동과 관련시켜 본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아동의 행동문제를 살펴 본 한영옥과 김문혜(2003)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Ryff 등(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이 주장한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 Ryff 등(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의 심리적 안녕감을 강조하는 것은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면도 있으나, 저소득층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달된 안정된 애착은 자기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적 작동 모델로 기능하면서 긍정적 자기 수용과 우호적 타인 관계 유지 등 심리적 안녕감 발달의 내적 자원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영향이 안정된 성인애착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 될 것이라 보는 이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들 속에서 보다 긍정적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저소득층 어머니안에 잠재해 있는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어머니 뿐 아니라 중산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산층 어머니와의 비교 자료는 저소득층 어머니만의 강점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 저소득층과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보다 많은 자료수집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내 경제적 낙후지역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A구와 B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유의표집한 후,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33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339)

변인	구분	저소득층 101명(%)	중산층 238명(%)	변인	구분	저소득층 101명(%)	중산층 238명(%)
어머니 연령	20대	8(7.9)	12(5.0))	남편 연령	20대	2(2.0)	2(8.0)
	30대	80(79.2)	202(84.9)		30대	72(71.3)	170(71.4)
	40대	13(12.9)	24(10.1)		40대	27(26.7)	66(27.7)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60(59.4)	74(31.1)	남편 학력	고졸 이하	56(55.4)	62(26.1)
	전문대졸	29(28.7)	81(34.0)		전문대졸	25(24.8)	62(26.1)
	대졸 이상	12(11.9)	83(34.9)		대졸 이상	20(19.8)	114(47.9)
어머니 취업 여부	전업	27(26.7)	103(43.3)	가계 소득	250만 미만	101(100)	
	취업	74(73.3)	135(56.7)		250-450만		238(100)
결혼 햇수	5년 이하	14(13.9)	33(13.9)	자녀 수	1	17(16.8)	38(16.0)
	6-10년	69(68.3)	167(70.2)		2	70(69.3)	176(73.9)
	11년 이상	18(17.8)	38(16.0)		3이상	14(13.9)	24(10.3)

저소득층과 중산층 구분은 연구자마다 그 기준점이 상이하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해인 2008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인점과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인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전국 4인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378만원(http://www.nso.go.kr)의 70%(265만원)에 가까운 250만원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구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 가장 많았으며 남편의 연령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과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저소득층은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 이상보다 많았으나 중산층의 경우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자가 더 많았다. 어머니 취업은 저소득층의 경우 70% 이상이 취업한 반면 중산층에서는 약 57%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결혼햇수는 6-10년 사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2. 연구척도

1) 성인애착

Collins와 Read(1990)의 개정된 성인애착 척도 RAAS(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친밀과 의지 각 6문항 씩 총 12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 중 문항간 신뢰도를 낮추는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각각 11-55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쉽게 접촉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히 느끼며, 자기 주변의 타인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심리적 안녕감

장혜란, 박선진, 이순철(2009)이 조윤주와 이숙현(2007)에서 참고한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의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나는 내 성격 대부분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 '아주 동의함(7점)'의 7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각각 18-126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애정적 양육행동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Rohner(1987)의 수용-거부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나은숙과 이종인(2008)의 척도 중 애정과 격려 요인을 토대로 애

정적 양육행동(8문항) 척도를 구성하였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 했을 때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준다' '아이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 준다' 등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각각 8-32점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조사 절차

대구경북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를 허락받은 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봉투에 밀봉된 질문지를 각 교사에게 배부한 후 유아들에게 교부하여 어머니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1주일 후 재방문하여 직접 수거하거나 방문 시 수거되지 않은 질문지는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한 문항이라도 결측치가 있거나 부실기재된 질문지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339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의 t 검증, Pearos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5에서 연구문제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간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차이를 <표 3>에서 살펴보았다.

<표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

변인(문항수)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문항수
성인애착(11)	22-54	40.89(5.66)	3.71(.51)
심리적 안녕감(18)	53-125	87.91(11.82)	4.88(.66)
애정적 양육행동(8)-	17-32	25.83(2.77)	3.23(.35)

<표 3> 소득에 따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의 평균 차이

변인	저소득층(101)	중산층(238)	t값
성인애착	39.94(5.59)	41.29(5.66)	-2.02*
심리적 안녕감	85.43(11.53)	88.96(11.81)	-2.54*
애정적 양육행동	25.15(2.78)	26.12(2.72)	-2.99**

*p <.05 ** p <.01

소득에 따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및 애정적 양육행동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성인애착(t=-2.02, p<.05), 심리적 안녕감(t=-2.54, p<.05)과 애정적 양육행동(t=-2.99, p<.01)은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 어머니가 중산층 어머니에 비해 성인애착 및 심리적 안녕감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과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를 중산층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 저소득층과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간 관계를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 각 소득층 별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 사이의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증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

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 변인을 통제했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매개 변인이 통제 될 때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셋째 단계에서 매개 변인이 통제 될 때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를 완전 매개, 매개 변인이 통제 될 때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가 유의하나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경우 부분 매개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단계를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별로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성인애착)이 매개변인(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성인애착)이 종속변인(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성인애착)과 매개변인(심리적 안녕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독립과 매개변인의 영향을 중회귀분석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3단계 과정의 경우, 중회귀분석 전 독립과 매개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간 상관관계(저소득층 아래층/중산층 윗층)

구분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
성인애착	1	.50***	.38**
심리적 안녕감	.47***	1	.44***
애정적 양육행동	.29***	.46***	1

**p <.01 *** p <.001

<표 4>의 아랫층부(저소득층)와 윗층부(중산층)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는 .50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 VIF값은 저소득층 1.29, 중산층 1.33으로 나타나 독립과 매개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양병화, 2002)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저소득층 1단계에서 나타나듯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독립변인인 성인애착 의해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 p<.001). 2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성인애착은 종속변인인 애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01). 한편 3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β=.10, ns)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β

=.41, p<.001)을 통제했을 때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경우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표 5>의 중산층 1단계에서 나타나듯 독립변인인 성인애착 의해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01). 2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성인애착은 종속변인인 애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8, p<.001). 한편 3단계에서 나타나듯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β=.21, p<.01)은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녕감(β=.34, p<.001)을 통제했을 때 감소하는 것(β=.38-->β=.21)으로 나타났다.

<표 5>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 영향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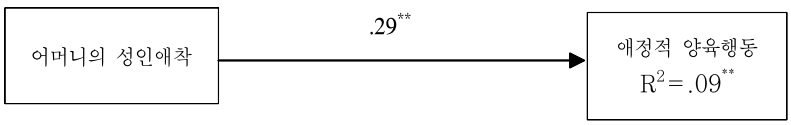
구분	단계	변인	상수 (Std.Error)	B (Std. Error)	β	F값 (df)
저소득층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성인애착 ---> 심리적 안녕감	20.40 (3.70)	.23 (.04)	.47***	28.41*** (1,99)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성인애착 ---> 애정적	19.31 (1.93)	.15(.05)	.29**	9.34** (1,99)
	3단계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 애정적	14.69 (2.12)	.05(.05) .10(.02)	.10 .41***	13.70*** (2,98)
중산층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성인애착 ---> 심리적 안녕감	20.06 (2,43)	.24(.03)	.50***	77.92*** (1,236)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성인애착 ---> 애정적	18.60 (1,21)	.18 (.03)	.38***	39.37*** (1,236)
	3단계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 애정적	15.02 (1,35)	.10(.03) .08(.02)	.21** .34***	34.77*** (2,235)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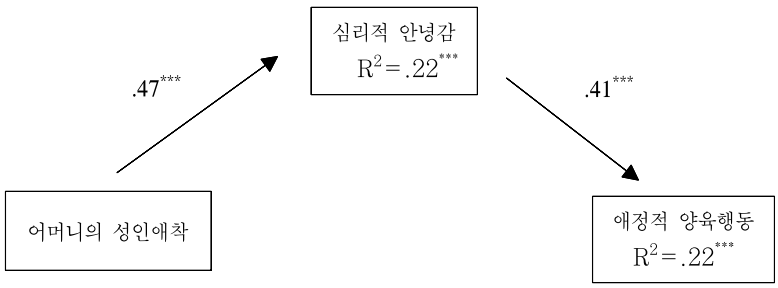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5>의 2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5>의 1,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와 함께 경로모형의 전체 및 직·간접 효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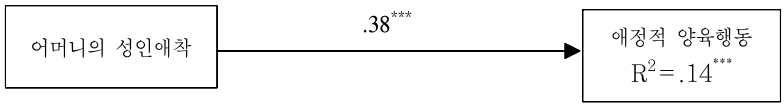
중산층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5>의 2단계 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5>의 1,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와 함께 경로모형의 전체 및 직·간접 효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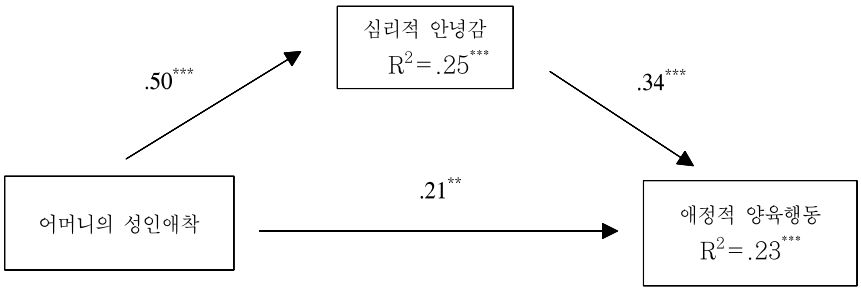
<그림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



<그림 2>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그림 3>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



<그림 4>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표 6>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모형 분할표

소득 구분	경 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저소득층	성인애착→심리적 안녕감	.47***	.47***	-
	성인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29***	-	.20**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	.46***	.41***	-
	구 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중산층	성인애착→심리적 안녕감	.50***	.50***	-
	성인애착→ 애정적 양육행동	.38***	.21**	.17**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	.44***	.34***	-

*p <.05 **p <.01 *** p <.001

Ⅳ.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지역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3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저소득층 어머니 101명과 중상층 어머니 238명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나 안정된 성인애착의 영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완전 매개 된다. 이러한 결론은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지만 안정된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심리적 안녕감이 통제되었을 때,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안정된 성인애착의 설명력이 유의성을 완전 상실했다는 사실에서 도출된 것이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에 의해 설명되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온정 또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과거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아버지의 인성 등 생애 초기 경험이나 생애 초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특성에 의해 영향받지만, 이러한 영향은 결혼만족도와 같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 매개된다는 연구결과(전현진, 박성연, 1999; 허영림, 윤혜진, 1999)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특히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성인애착과 같이 생애 초기부터 발달한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받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평가되는 삶의 만족도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소득이라는 객관적 지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삶에 대한 태도는 중산층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애정적 양육행동(<표 3> 참조)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변화량에 대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저소득층과 중산층 각 3단계에서 나타나듯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변화량에 대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은 22%(R^2=.22), 중산층의 경우 23%(R^2=.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한 설명량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등 2개의 변인에 의해 23% 설명되는 것이라면 저소득층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심리적 안녕감 하나의 변인만으로 22%를 설명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중산층에 비해 낮은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 비해 낮은 삶에 대한 만족(<표 3> 참조) 즉 자아실현적 행복인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도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처럼 생애 초기 경험하는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받지만 그 영향은 심리적 안녕감이 통제되었을 때, 영향력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성인애착의 영향을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 하

지만 매개의 범위는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심리적 안녕감만큼이나 과거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전한 성격 특성인 성인애착(Thompson, 2000)이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록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일부 매개되기는 하지만 어머니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인 성인애착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개별적으로 애정적 양육행동을 안정성있게 실천하도록 하는 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는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보다 안정성 있을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성격 특성이 갖는 안정적 특성(Clark, Watson, & Mineka, 1994) 때문이다.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중산층 아동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만족감이 위협받는다해도 어머니 자신의 성인애착에 의해 애정적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만족감이 위협받을 때 애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성격 특성인 성인애착에 의해 의미있게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통제될 때,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이 중산층에 비해 크다는 것은 삶의 만족이 전반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신기영, 옥선화, 1997; 이현송, 2001)의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이 쉽게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보다 많은 애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삶의 만족도는 불변하는 고정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Fujita & Diener, 2005)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중재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 모색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성인애착 증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의 1단계를 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인애착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비록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저소득층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심리적 만족감을 22%나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2). 저소득층 어머니 뿐 아니라 중산층 어머니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성인애착의 설명력이 25%나 유의하게 나타났다(R^2=.25).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환경을 통제하는 힘이 낮거나 타인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Hortacsu, Cesur, & Oral, 1993)와 유사한 것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자원으로 성인애착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인애착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인애착은 성격 특성으로 안정된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이란 것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 태도, 믿음이라는 측면임을 고려해 보면 안정된 애착 경험의 제공과 훈련 프로그램은 성인애착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나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이 성인애착과 유관하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머니의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낮은 애착형성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아동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낮은 성인애착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어머니의 안정된 성인애착, 심리적 안녕감,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산층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낮은 긍정성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중산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보다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내적 요인을 통해 좀 더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이라는 경제적 문제의 지원 노력과 함께 어머니의 잠재된 내적 긍정성과 강점을 일깨우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감소에 희망이라는 긍정적 정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김지혜, 성정현, 2010)처럼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 노력은 애정적 양육행동 향상이라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강점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 연구는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인간 내면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된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중산층 어머니와 비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저소득층(101명)에 비해 중산층(238명)의 표본 수가 2배 이상 많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자료수집 하는 등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김은정, 권정혜(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지영, 민하영(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37-155.

김지혜, 성정현(2010). 빈곤여성가장 대상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의 효과: 생활자금을 지원한 한국여성재단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의 사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73-201.

나은숙, 이종인(2008) 부모의 자녀수용-거부와 통제 척도에 대한 한국 타당화 검사: 유아 부모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215-247.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송신영, 박성연(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5),** 19-33.

신기영, 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신민희, 구재선(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이주일(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이현송(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 욕구이론과 비교이론의 대비. **노동경제논집, 24(1),** 231-251.

양병화(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장혜란, 박선진, 이순철(2009). 고령운전자의 이동성(Mobility)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2),** 251-271.

조윤주, 이숙현(2007). 경제 활동을 하는 남녀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요구-조절-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27-141.

전현진,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허영림, 윤혜진(1999).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자아 존중감, 부친의 양육성 지각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4(2),** 145-157.

한영옥, 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통계청 http://www.nso.go.kr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man, W. H., & Sperling, M. B.(1994).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enoit, D., & Parker, K. C. H.(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York: BasicBooks.

Clark, L. A., Watson, D., & Mineka, S.(1994). Temperament, personality, and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03-116.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Compton, W. C.(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pson Learning.

Crowell, J. A.,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575.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1967 to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Fujita, F. & Diener, E.(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 - 164.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 Lennon, M. C.(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 70-95.

Hazan, C., & Shaver, P. R.(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ortacsu, M., Cesur, S., & Oral, A.(1993).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attachment styles in parent- and institution-reared Turkish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329-337.

Rohner, R. P.(1987).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control, and punishment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school conduc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youth in a biracial southern community.* Unpublished data.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 (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R. P. Rohner & A Khaleque(4th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Ryff, C. D. & Keyes, C. 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Schmutte, P. S. & Ryff, C. D.(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Reexamining methods and mean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49-559.

Thompson, R. A.(2000). New direct ions for child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Volling, B. L., Notaro, P. C., & Larsen, J. J.(1998). Adult attachment styles: 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marriage, and parenting. *Family Relations, 47(4),* 355-367.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ffection parenting in low-income class and middle income class The subjects were 339 mothers who reared 3-5 old age child in Daegu and Gyou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single and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5.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dult attachment fully exerted indirect effects on affection parenting mediat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in low income class of mothers.

(2) But adult attachment partly exerted indirect effects on affection parenting mediat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income class of mothers.

Key Words: mother's adult attachment in low income class,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ion parenting

2011. 12. 31. 투고 : 2011.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1. 07. 28. 최종게재결정